

# 2016년 12월 외국인 이주민 성별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2016년 12월 통계월보 기준)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에서 외국인의 출국과 입국, 비자 발급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다. 법무부 산하 기구인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에 19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 23개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를 운영하며, 출입국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통계월보와 통계연보를 발간한다([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그런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제공하는 통계월보의 한글자료는 성별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다. 통계월보와 함께 첨부된 엑셀 파일에서 1)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자, 2) 국적·지역 및 체류자격별 장단기 체류 외국인인의 수치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엑셀파일을 별도로 분석하지 않고서는 이주민 성별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 글은 국내 체류가 많은 국가 및 체류 자격에 대한 이주민 성별 통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2016년 12월 통계월보와 함께 공개된 엑셀 파일의 통계 자료를 재구성 한 것이다.

## 1.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 2,049,441명으로,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중 여성은 46%인 932,235명이다. 이주민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아시아 출신이 1,778,486명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하는데, 아시아계 이주민의 성비 역시 여성 46%로 전체 이주민의 성비와 같다.

[표1] 전체 이주민 및 아시아계 이주민의 인구와 성비

구분	이주민 전체	아시아계 이주민
전체	2,049,441 (100%)	1,778,486 (100%; 이주민 전체의 87%)
여성	932,235 (46%)	816,309 (46%)
남성	1,117,206 (54%)	962,177 (54%)

2.

주요 체류자격(비자)을 중심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이주민 성별 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류자격별 이주민의 인구와 성비

구분	유학 (D-2)	예술 흥행 (E-6)	특정 활동 (E-7)	비전문 취업 (E-9)	재외 동포 (F-4)	영주 (F-5)	결혼 이민 (F-6)	방문 취업 (H-2)	방문 동거 (F-1)	거주 (F-2)	동반 (F-3)
전체	76,040	4,302	21,498	279,187	372,533	130,237	121,332	254,950	103,826	39,681	22,828
여성	44,309 (58%)	3,180 (74%)	6,240 (29%)	24,078 (8%)	191,994 (51%)	71,787 (55%)	101,393 (83%)	108,554 (42%)	62,197 (60%)	22,962 (57%)	15,042 (66%)
남성	31,731 (42%)	1,122 (26%)	15,258 (71%)	255,109 (92%)	180,539 (49%)	58,450 (45%)	19,939 (17%)	146,396 (58%)	41,629 (40%)	16,719 (43%)	7,786 (34%)

한국인과 결혼하여 F-6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83%가 여성이다. 공연과 스포츠 등의 활동을 하는 예술흥행 E-6비자는 여성이 74%로 남성보다 많고, D-2비자의 유학생도 여성이 58%로 남성보다 많다. 영구 체류 허가(F-5)를 받은 영주권자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55%로 조금 더 높고, 중국 동포가 다수인 재외 동포 비자(F-4)는 성비가 거의 비슷하나 여성이 51%로 약간 높다. 국제결혼 이주민의 본국 가족이 포함된 방문동거 비자(F-1)에서도 여성이 60%로 여성의 비율이 높는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어머니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거주(F-2)와 동반(F-3)비자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높다.

반면에, 남성 비율이 높은 비자는 주로 취업과 관련된 비자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취업 비자(E-9)에서 남성의 비율은 92%로 압도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로 취업이 가능한 특정활동 E-7비자 역시 남성이 71%를 차지한다. 한국계 외국인(중국동포가 다수를 차지)을 대상으로 한 특례 고용허가제로 방문취업하는 H-2비자역시 남성이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H-2비자는 식당 등 서비스업 취업이 가능하여 고용허가제(E9)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다.

3.

다음은 국내 체류자 수가 많은 아시아 지역 국가의 주요 체류 자격을 성별로 정리하였다. 아래의 [표3]을 보면 성별에 따른 특징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체류 인원에서 성비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국가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중국, 몽골이다. 하지만 체류 비자별로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은 고용허가제(E-9)로, 여성은 결혼 비자(F-6)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베트남의 전체 체류 인원은 149,384명(남 71,727명, 여 77,657명)이며, 이 중 E-9비자는 40,415명, F-6비자는 38,866명으로 나타난다. E-9비자 남성은 36,784명이고 여성은 3,631명인데 반해, F-6비자 남성은 1,291명이고 여성은 37,575명으로, 두 비자의 성별에 따른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3] 출신국가 및 체류자격에 따른 인구와 성비

구분	총 체류자 수		체류 자격							
			유학 (D-2)	예술 홍행 (E-6)	비전문 취업 (E-9)	방문 동거 (F-1)	재외 동포 (F-4)	영주 (F-5)	결혼 이민 (F-6)	방문 취업 (H-2)
한국계 중국인	남	326,662	95	1	429	4,128	135,004	38,915	5,976	133,963
	여	300,342	73	1	317	4,769	140,338	36,392	11,431	98,615
	계	627,004	168	2	746	8,897	275,342	75,307	17,407	232,578
중국	남	177,488	17,111	152	2,601	18,154	0	8,722	3,938	1
	여	212,115	29,425	134	419	26,414	0	17,013	20,658	1
	계	389,603	46,536	286	3,020	44,568	0	25,735	24,596	2
베트남	남	71,727	2,300	9	36,784	12,277	0	149	1,291	1
	여	77,657	2,392	13	3,631	20,008	0	1,348	37,575	1
	계	149,384	4,692	22	40,415	32,285	0	1,497	38,866	2
타이	남	53,942	116	7	20,962	48	0	3	74	0
	여	46,918	335	12	3,733	180	4	605	2,470	0
	계	100,860	451	19	24,695	228	4	608	2,544	0
필리핀	남	30,456	203	274	23,336	568	5	37	299	0
	여	26,524	345	2,452	3,011	2,710	8	570	10,490	0
	계	56,980	548	2,726	26,347	3,278	13	607	10,789	0
우즈 베키 스탄	남	36,502	1,047	8	15,377	1,897	3,703	111	74	9,194
	여	17,988	360	29	277	2,242	3,498	764	1,492	7,761
	계	54,490	1,407	37	15,654	4,139	7,201	875	1,566	16,955
일본	남	17,207	295	27	0	119	202	635	792	0
	여	34,090	1,367	22	0	222	594	6,526	5,488	0
	계	51,297	1,662	49	0	341	796	7,161	6,280	0
인도네 시아	남	40,155	519	2	30,772	17	144	16	66	0
	여	7,451	651	60	1,389	72	25	135	479	0
	계	47,606	1,170	62	32,161	89	169	151	545	0
캄보 디아	남	31,546	208	0	29,802	856	2	0	61	0
	여	14,286	129	0	7,943	1,375	3	86	4,121	0
	계	45,832	337	0	37,745	2,231	5	86	4,182	0
몽골	남	17,256	951	90	5,635	311	0	40	112	0
	여	17,950	1,812	22	1,051	814	0	550	1,628	0
	계	35,206	2,763	112	6,686	1,125	0	590	1,740	0
네팔	남	30,394	490	0	27,696	108	0	40	123	0
	여	3,714	137	0	1,814	209	0	46	755	0
	계	34,108	627	0	29,510	317	0	86	878	0
스리 랑카	남	26,774	144	4	24,801	29	0	17	219	0
	여	876	72	4	298	36	0	2	55	0
	계	27,650	216	8	25,099	65	0	19	274	0
미얀마	남	21,652	141	0	19,890	2	0	3	33	0
	여	803	229	0	4	24	0	4	102	0
	계	22,455	370	0	19,894	26	0	7	135	0
방글라 데시	남	14,652	654	0	10,211	44	0	65	255	0
	여	830	118	0	55	25	0	3	61	0
	계	15,482	772	0	10,266	69	0	68	316	0
파키 스탄	남	11,176	1,022	1	3,849	64	0	163	681	0
	여	1,463	155	0	2	48	1	14	119	0
	계	12,639	1,177	1	3,851	112	1	177	800	0

필리핀 역시 E-9비자 남성은 23,336명인데 반해 여성은 3,011명에 불과하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F-6비자는 여성이 10,490이며, 남성은 299명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크,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남성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만 여성들은 체류 인원 자체가 적다.

고용허가제(E-9)로 많이 들어온 국가는 베트남(40,415명), 캄보디아(37,745명), 인도네시아(32,161명), 네팔(29,510명), 필리핀(26,347명), 스리랑카(25,099명), 타이(24,695명), 미얀마(19,894명) 순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여성 이주 노동자 수는 캄보디아가 7,94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타이(3,733명), 베트남(3,631명), 필리핀(3,011명), 네팔(1,814명), 인도네시아(1,398명), 몽골(1,051명) 순이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남성 이주노동자는 베트남이 36,784명으로 가장 많고, 인도네시아(30,772명), 캄보디아(29,802명), 네팔(27,696명), 스리랑카(24,801명), 필리핀(23,336명), 타이(20,962명), 미얀마(19,890명), 우즈베키스탄(15,377명), 방글라데시(10,211명) 순이다.

한국계 외국인을 위한 취업 비자인 방문취업제도의 H-2 비자는 중국동포인 한국계 중국인이 232,578명으로(여 98,615명) 압도적으로 많고, 우즈베키스탄이 16,955명(여 7,761명)으로 뒤를 잇는다.

한편, 예술행 E-6비자는 필리핀 여성에게(전체 E6비자 4,302명 중 필리핀 여성 2,452명), 재외동포 F-4비자는 중국과(275,342명 중 여성 140,338명) 우즈베키스탄에(7,201명 중 여성 3,498명) 집중되어 있다. 영주권은 중국 출신에(한국계 중국 75,307명 중 여성 36,392명, 중국 25,735명 중 여성 17,013명) 많으며, 일본 여성들도(일본 영주F5비자 전체 7,161명 중 여성 6,526명)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한다.

결혼비자 F-6로 체류 중인 이주민 수는 121,332명이다(표2 참조). 하지만 통계월보의 국민의 배우자 통계에서는 152,374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표4 참조), 통계월보에서는 2009년 이전(F-1-3, F-2-1), 2010년 이후(F-2-1, F-5-2), 2011년 12월 이후(F-2-1, F-5-2, F-6) 비자를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2016년 12월 기준 한국인과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혼인 귀화자는 114,901명으로 전체 결혼이주민 수는 288,603명이다.

[표4] 국적·지역 별 국민의 배우자 성별 현황

국적 구분	계	중국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캄보 디아	타이	몽골	기타
전체	173,702 (100%)	56,930 (37.4%)	21,328 (27.4%)	41,803 (27.4%)	13,110 (8.6%)	11,606 (7.6%)	4,473 (2.9%)	3,182 (2.1%)	2,381 (1.6%)	18,889 (12.4%)
남자	23,856 (15.7%)	11,629	6,889	1,324	1,218	334	61	77	117	9,096
여자	128,518 (84.3%)	45,301	14,439	40,479	11,892	11,272	4,412	3,105	2,264	9,793